

-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

시 정 연 설

존경하는 증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연종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1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우리군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역발전에 동참해 주신 3만 7천여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군민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은 유난히 대내·외적으로 사건·사고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한반도 사드배치로 인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고, 울산·경주지역의 대규모 지진으로 불안감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등으로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엘리뇨로 인한 기상이변과 세계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 등 자연재해와 질병의 유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영국의 EU 탈퇴, IS와 같은 무장단체의 테러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한·미 관계를 비롯해 국제 질서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와 OECD는 교육·투자 부진, 구조개혁 지연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을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고, 국내 경제성장률 역시 지난해 2.6%, 올해 예상치 2.8% 등 저성장 기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운업계의 구조조정, 가계 실질소득 감소와 이로 인한 내수 위축,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경제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는 65만3천 명으로 지난해에 이어 급증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9.4%로 외환위기 이후 1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소비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의 세계경제는 2014년 이후 부진에서 벗어나 3%이상 성장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드론, 가상현실 등의 과학기술도 그 동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영역까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3만 7천여 주민 역시 위기와 시련속에서도 그 어느 때 보다 단합된 의지와 결속을 통해, 역경과 고난을 딛고 희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의원님 여러분과 380여 공직자 모두가 하나되어, 「인구 4만 시대를 넘어 5만 시대 준비」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 우려가 커지면서 지자체마다 인구 증감 현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내 일부 시군의 경우 인구소멸 위험단계로 진입하고 있어 향후 존립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지역 인구 증가율은 5.64%로 도내 1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합계출산율 또한 1.83명으로 전국평균 1.24명과 도내 평균 1.4명을 현저히 앞서 도내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실시한 ‘행복지수’ 조사에서는 전국평균 58.83점, 충북평균 59.4점으로 지수가 다소 정체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증평균은 64.6점으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돼 우리 증평군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지역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도시재생분야 전국 최우수상 수상으로 공약관리 우수단체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제21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평가에서 충북도내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인부문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보강천 녹색나눔숲 조성사업 최우수기관 및 산림행정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산림청주관의 도시 숲 조성과 생태적 건강성 평가에서도 도내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 6대 명품 녹색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최우수상, 지역행복생활권 운영 평가 우수기관, 공무원 지식인대회 최우수, 강소농 육성평가 우수기관 선정과 함께, 충북 도내 최초로 지역발전사업 3년 연속 우수기관 및 3개 부문 기관표창 수상은 전국 최초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는 것으로서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전국 지자체 ‘보행정책 성과지수’를 산정한 결과 녹색교통 활성화부분 및 보행안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에서 가장 걷기 좋고 안전한 도시로 평가를 받은 바 있어 녹색도시 구현에 한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공모사업과 역점사업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보강천 녹색나눔숲 조성사업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국비 8억원을 확보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시·군 창의공모사업인 ‘3농 3안 농촌마을 만들기’가 선정되어 1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2018년까지 CCTV를 추가 설치하여 범죄 예방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농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역점사업인 증평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은 현재 공정율 98%로 30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분양율 67%를 보이고 있으며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에듀팜 특구 조성사업은 지난 7월 도와 우리군, 농어촌 공사와 블랙스톤의 MOU 체결 후 개발계획 변경 공청회 및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변경승인을 받고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 후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이 괄목할 만한 성과와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군정에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신 3만 7천여 군민과, 군정의 동반자로서 지역 사회와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협조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 정유년(丁酉年)은 붉은 닭의 해로 광명과 영원, 풍요와 정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닭은 축야(燭夜)로서 어둠 속에서 새벽을 알리는, 빛의 도래를 예고하는 태양의 새입니다.

올 해가 민선4기 후반기의 반환점을 돌며 주요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해였다면, 내년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완성도를 높이고 가시적 성과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그 어느 때 보다 붉은 닭이 의미하는 광명과 풍요로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380여 공직자 모두는 지역에는 희망을, 군민께는 행복을, 중평군의 미래를 위해

2017년 한 해도 전국 최고의 살기좋은 증평건설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군민이 행복해지는 10대 미래 비전**과 함께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4시간 마음 편한 「**안전제일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영상관제센터의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범죄발생 사전 차단으로 군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생활 안전용 카메라(CCTV) 및 가로등을 설치하여 우범지역을 없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위치찾기 기초행정 인프라 구축하여 각종 구역의 일원화를 통한 긴급상황의 위치표시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로 및 상·하수도 등 7대 지하시설물에 대한 DB 통합 구축을 통한 각종 재난사고의 사전 예방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실전적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하여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금곡·안골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하천 생태공원 관리와 노후 하천시설 보수,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통해 자연재난 대비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2차년도 추진으로 안전인프라 개선 및 안전문화운동을 통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교체정비, 신규 버스노선 확·포장 공사 및 자전거도로 환경개선, 중평군민 자전거 보험가입 및 교통안전교육장 운영으로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 안전도시의 면모를 이어가겠습니다.

두번째, 머물고 싶고 살고싶은 「**녹색명품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삼보권역 및 사곡권역, 장이익어가는 마을권역 등 마을별 특성에 맞는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주민역량강화 및 소득기반을 확충하는 마을종합정비사업과 주민 스스로 농촌 발전을 계획하는 외릉·통미 창조적 마을만들기 및 죽리 새뜰 마을 사업을 통하여 농촌취약지역 내 기반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수도시설의 최적화된 유지관리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총사업비 158억이 투자되는 5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3차분 공사를 통하여 공공수역을 보전하겠습니다.

또한 에듀팜 특구조성에 필요한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 제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배수관로 확장사업,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하여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녹색쌈지숲 및 생활환경숲 조성으로 도심속 녹색 휴식공간을 확대하고, 보강천 미루 나무숲과 좌구산 휴양랜드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체험 단지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및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녹색명품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세번째, 100세 시대 함께 누리는 「건강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군민 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복지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초고령사회의 진입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 대학 운영 등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과 노인돌봄 서비스, 경로당 운영지원을 비롯한 노인복지의 지속적인 시행과 군립 봉안시설 매입 등 장례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선진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 및 적기 예방접종 지원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서비스 제공,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치매관리사업으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취약 업소 중점 지도·점검과 학교주변 그린푸드존 설치, 음식점 이용불편 365부르미 운영 등 선진 음식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네번째, 배려와 존중의 「약자 친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와 경제적 지원 및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초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장애인의 자기 능력 계발로 자립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장애인 사업 활성화, 노후화된 장애인단체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장애인 회관 설치로 더불어 사는 사회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수요자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 예방 및 보장비용 징수를 통한 복지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추진 및 역량 강화 사업과 함께 여성 인권 보호·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요보호 아동의 자립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여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등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맞춤형 출산장려 지원 및 연령별 보육·양육서비스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 및 건강관리 지원을 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및 안심보육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 건강돌봄서비스, 저소득층 국가 암관리사업 및 의료비 지원, 정신적 재활치료비 지원은 물론, 특히 장뜰시장으로 찾아가서 도움주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소외계층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두루 살피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는 행복택시를 지속·운영하고 1:2급 장애인 및 65세이상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교통약자 콜택시를 운영하여 이동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학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수인재 육성 장학금 및 우수학생 배출학교 인센티브 지원, 비전투어 및 영어캠프 등 도·농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지역교육의 낙후성을 탈피하고 학습욕구 충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적 지역인재 육성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을 활용한 행복학습 공동체 운영,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습으로 하나되는 학습공동체 문화 확산으로 인생 100세 시대 평생학습을 통한 주민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주민-공무원-전문가의 삼위일체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등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맞춤형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일환인 글로벌 꿈나무 창의 공작소 운영으로 창의융합 체험교육을 통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 미래를 선도할 창의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복합 문화공간인 군립도서관에서는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과 작은영화관 운영, 아고라 광장 프로젝트, 책과 함께하는 생태놀이 학교 및 별밤 옥상 콘서트 등 책과 놀이와 자연을 연계한 특색있는 도서관 운영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충족하는 늘 함께하는 도서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여섯째, 오감만족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 증대와 활력 충전을 위한 경쟁력있는 우수 문화관광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방문객이 20여 만명, 농·특산물 9억7천여 만원 판매 등 경제적 효과가 62억 여원에 달하고 있는 인삼골 축제를 K-POP 콘서트, 향토음식경연대회, 그린 환경문화예술제 등 우수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이제는 우리군만의 축제가 아닌 전국 규모의 축제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국가 지정문화재인 추성산성을 지속 복원·정비하고, 민속체험 박물관 전시 확대 및 교육기능 확충, 들노래 민속마을 경관개선사업과 공예디자인 창조벨트 조성, 세종대왕 100리길 힐링로드 조성, 김득신 문학관 건립 등 지역의 전통문화와 관광자원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규모대회 개최가 가능한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하여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증평 생활체육관 준공,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를 통한 생활체육 기반 확대로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일곱째,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활력도시」를 만들겠습니다.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특색있는 공모사업 발굴로 미래가 있는 활력있는 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근로사업과 일자리종합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구인·구직 확대, 지역맞춤형 잡 (JOB) 컨설팅 사업 및 취업박람회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에 대한 노력과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육성,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의 일자리와 소득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제2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됨에 따라 조기 입주 노력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와 증평 제3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자 결정 등 사전절차 이행, 증평에듀팜 특구의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동력확보와 새로운 소득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기업환경 조성으로 지역상권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여덟째, 복지농촌을 꿈꾸는 「**미래농업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노후·불량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수 등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개선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을 통해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 후계농업경영인 및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육성,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농산물우수관리(GAP) 분석지원 등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으로 안정적 농가경영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고품질 원예·특작물 육성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증평 인삼홍보를 강화하여 수출기반을 조성하면서 지역 농·특산품 브랜딩을 위한 홍보마케팅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축질병 방역체계 구축,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및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하고 꿀벌랜드 조성사업을 통한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제고하겠습니다.

지역간 연계도로망 확충 및 지역특화권 진입부 선형개량 공사, 권역단위 마을 종합정비사업 및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아홉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평생 살고 싶은 「친환경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및 연탄바우처 사업, 도시가스 공급보조를 통한 에너지 자립기반 확충,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및 비영리시설의 태양광 설치사업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솔라시티 중평 기반을 구축하고 에너지 복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도안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연암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수질오염총량의 철저한 관리,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관리를 통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고, 광역(괴산·증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통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추진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전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대기배출업소의 체계적 관리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제고 및 온실가스 저감 실천운동 전개로 저탄소 녹색환경 구현과 함께,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사업을 통하여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응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가축분뇨배출업소, 폐기물 처리 및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 열번째, 신뢰와 소통의 「청렴행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 등 청렴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자율적 내부통제 3대 시스템 및 공직비리 신고센터 운영, 예방중심의 감사추진을 통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직자뿐만 아니라 주민 및 관계자들의 의식전환으로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청렴증평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이 공감하는 소통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오감만족 행복민원실 운영, 민원품질평가제, 357모니터링제 운영 등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여권업무 처리 등 주민과 소통하는 감성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주민참여예산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 의견수렴 창구를 다양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편성한 201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675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0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68억원입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원 (0.46%) 증가한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인구증가 등으로 인한 자체세원 증가, 상·하수도 요금 인상, 2016년도 내국세 초과징수로 인한 2017년도 보통교부세 재원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증가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일반회계)는 14.8%에서 15.16%로 전년대비 0.36%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마무리 및 군 계획도로 건설 등 지역 인프라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원증가 및 군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청사 증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행사·축제성 예산 및 지방 보조금 사업은 한도 내로 편성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면서도 민선4기 성공적인 항해를 위한 대규모 군정 역점 사업에 투자하는 한편, 민생안정 및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구축, 신재생에너지 기반 확대 및 녹색도시 조성 등 지역 균형발전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예산배분을 집중하였으며 연차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복지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우리군의 가용재원 축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되는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였음은 물론, 투자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7년 예산이 최종 의결되면,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사업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부족한 재정 확충을 위한 추가재원을 발굴하는 등 지역발전의 중추가 되는 참신한 신규사업 발굴에 행정력을 결속시키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부예산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그리고 연종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03년 초미니 지자체로 독립한 우리군이지만, 지난 13년간 꾸준한 인구증가와 정주여건 향상으로 인구증가율 도내 1, 합계출산율 도내 1위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강소도시’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군민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보여주신 신뢰의 결과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증평의 발전사’가 역사적인 유산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증평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증평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세종대왕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위 32년 동안 세종대왕이 꿈꿔온 목표는 “모든 백성들이 생생지락(生生之樂) 하는 나라” 즉, “백성들이 편하게

살면서 즐겁게 일하는 나라” 라는 뜻이며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생생지락하는 증평군을 만들어
가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광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붉은 닭의 해’를 맞이하여 그간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최고의 행복도시 증평을 만들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증 평 군 수 홍 성 열